

세상은 지금...

사진으로 보는 뉴스

출처: 신화넷

미국 · 이스라엘 · 이란 전쟁 30일 전쟁 그림자 아래 두 도시 일상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했다. 30일이 지난 지금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란 테헤란과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민들은 경보음과 폭발음 속에서 밤낮을 보내고 있다. 두 도시 사람들은 전쟁의 그림자 아래에서도 일상을 이어가며 평화의 려명을 기다리고 있다.



3월 13일, 테헤란에서 사람들이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3월 7일, 테헤란의 한 헌혈중심에서 사람들이 헌혈을 기다리고 있다.



3월 26일, 텔아비브에서 공습 경보가 울리자 사람들이 대형 공공 민방위 시설에서 대피하고 있다.



3월 11일, 텔아비브에서 공습 경보가 울렸음에도 대형 공공 민방위 시설 안에서 대피중인 한 남성은 계속 업무를 보고 있다.

중국 새 소비품 브랜드, 라틴아메리카서 인기



4월 1일, 메히코 수도 메히코시타의 헌법광장에서 한 어린이가 밀설빙성(蜜雪冰城) 제품을 들고 있다. 최근 몇년간 중국의 새 소비품 브랜드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조용히 입소문을 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중국 제조와 공급망 그리고 브랜드 운영 능력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흐름을 의미하고 있다.

쿠바 청소년들, 반제국주의 행진



4월 2일, 수백명의 쿠바 청소년들이 수도 아바나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쿠바혁명을 수호하는 행진을 벌였다.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이며 국가주석인 디아스-카넬, 쿠바 총리 마레로,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조직 서기 모랄레스 등 당과 정부 지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다.

모스크바, 전차 행진 개최



4월 4일, 행진에 참가한 전차들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거리를 달리고 있다. 이날 모스크바에서는 전차 행진을 개최하여 모스크바 전차 운행 127주년을 기념했다.

이란: 미국 · 이스라엘 공격으로 역사유적 · 문화유산 피해 심각

3월 31일, 테헤란에서 이란 유네스코 전국위원회 비서장 하산 파르투시가 팔라크 올 아프라크 성(城堡) 모형을 들고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 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란 관리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의 역사유적과 문화유산이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재개방 예정



2019년 6월 14일, 관광객과 일부 외국 매체 기자들이 한국 고성군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걸으며 둘러보고 있다.

4월 1일, 한국정부는 "이번 달 한조 점경 비무장지대 일대의 평화를 주제로 한 도보 구간 12개를 전면 재개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대마초 '중독자' 사상 최대



4월 2일, 일본 경찰청은 "2025년, 일본에서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피운 혐의로 조사받은 인원이 약 7,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70% 이상이 젊은층으로 대마초가 일본 젊은층을 갈수록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